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45-89  
<https://doi.org/10.29212/mh.2020..115.4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한국군의 초기 서독 군사유학 경험과 그 영향\*

김도민\*\*

1. 머리말
2.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의 유형 및 경험
  - 가. 서독 육군사관학교
  - 나. 서독 지휘참모대학
  - 다. 서독 일반대학
3. 서독 군사유학이 한국군에 미친 영향
  - 가. 임무형 전술
  - 나. 복무규율·교육과정·기갑부대운영
4. 맺음말

\* 본고는 201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단이 주최한 ‘구술로 본 한국군과 정치·사회변동’이라는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한국군 장교의 초기 독일 군사유학 경험과 그 영향」을 수정·보완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직접 만난 문영일·민병돈·정영주·유보선·박영한 장군의 생애사 구술 덕분에 가능했다. 본인들의 일생의 경험을 처음 보는 면담자에게 자세하고 친절히 이야기 해준 다섯 구술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 1. 머리말

한국군의 해외 군사유학은 미군정 말기인 1948년 7월부터 시작됐다.<sup>1)</sup> 한국전쟁과 1950년대 내내 한국군 장교들은 미국의 초등군사반·고등군사반 과정에 참여하는 등 많은 수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만으로 가던 군사유학에 더해 1960년대 중반부터 서독 군사유학의 길이 열렸다.<sup>2)</sup> 육군사관학교는 1965년 2월 건군(建軍) 이후 처음으로 해외 사관학교에 생도를 파견했으며 이후 한국군의 위관급·영관급 장교들도 서독 지휘참모대학 및 일반대학에서 수학했다. 1965년부터 시작된 한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독일 군사유학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독 군사유학은 한국군 내에 인적(人的) 및 군 지휘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첫째 인적 차원에서 볼 때 육군사관학교 입학 기수를 기준으로 서독 사관학교에 유학한 24기부터 43기까지 22명 중 무려 16명이 장군으로 진급했을 뿐 아니라 독일 군사유학생들 중 다수가 장·차관을 역임하기도 했다.<sup>3)</sup> 2017년 한국에서는 사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른바 한국군 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 조직으로서 ‘독일 사관학교 출신’의 의미를 가지는 ‘독사파(獨士派)’가 거론되기도 했다.<sup>4)</sup>

둘째 한국군은 독일에서 유래한 ‘임무형 지휘’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서독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장교들

1)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115~118쪽.

2) 본고는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 시기를 명확히 지칭할 때는 서독이라는 당대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외는 통칭 독일로 표기했다.

3) 「金寬鎭과 독일 陸士 출신들: “실전 위주로 배워 野戰에 강하다” 『월간조선』 2014년 7월호.

4) KBS NEWS 「홍익표 “사드 보고 누락, 독사파 개입 가능성...중심엔 김관진”」, 2017년 6월 2일자(<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1709&ref=A>). (검색일: 2020년 4월 1일)

에 의하여 ‘임무형 전술’ 개념에 대한 한국군 내 논의를 시작으로, 1999년 ‘임무형 지휘’는 육군 지휘개념으로 공식 채택됐다.<sup>5)</sup> 2006년 육군본부는 『인간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라는 교육회장을 발간했으며 현재 육군교육사령부 내 ‘리더십·임무형지휘센터’가 운영중이다.<sup>6)</sup>

한국군의 군사유학의 행선지는 1950년대까지 미국뿐이었다. 그런데 한국군은 1965년 처음으로 서독 군사유학을 실시했다.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의 실시는 1961년부터 본격화된 한독(韓獨)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1957년 전후 진행된 미국의 상호안전보장계획의 재검토 결과 미국의 대외원조에는 변화가 발생했고, 이후 실제 미국의 대한원조는 감소했다.<sup>7)</sup> 줄어드는 미국의 대한원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다방면으로 원조 공여자를 찾았는데, 그 결과 1961년 12월 13일 서독과 경제원조까지 포함한 「한·독 정부간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sup>8)</sup>

한국정부가 서독과 관계가 밀접해진 것은 미국의 대한원조 감소라는 요인뿐 아니라 1960년 4·19 이후 수립된 장면정권과 5·16 이후 등장한 군사정부의 새로운 외교전략과도 맞물려 있었다. 장면정권과 군사정부 모두 과거 이승만정권의 외교를 대미(對美) 일변도의 ‘고립외교’라 비판하며 외교의 다변화를 표방 및 추진했다. 즉 1960년 이후 한국정부는 외교 다변화라는 새로운 전략 하에서 서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갔다.<sup>9)</sup> 서독도 냉전적 사고에 의해

5)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임무형 지휘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6, 7쪽. 이 최종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 육군본부 『인간중심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2006.

7) 이동원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213~259쪽.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과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1권, 179~180쪽.

9) 장면정권과 군사정부의 이승만정권의 대미일변도 외교에 대한 비판과 다변화하는

한국이 서방에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32개국 후진국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시켰다.<sup>10)</sup> 1963년 한국정부는 서독에 한국광부들을 파견했으며, 1966년에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간호사 파견은 정부 차원으로 확대됐다.<sup>11)</sup> 이처럼 1960년대 초 긴밀해지는 한독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도 1965년부터 처음 시행될 수 있었다.<sup>12)</sup>

기존 한국군의 해외 군사유학을 다룬 연구들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다.<sup>13)</sup>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은 육군사관학교가 유학을 떠난 사관생도들의 명단과 선발방법 등을 교사(校史)에 간략히 정리해놓았을 뿐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다루이지 못했다.<sup>14)</sup>

이에 본고는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갔던 초창기 한국군 장교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이 한국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첫째 1965년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은 누가, 몇 명이, 몇 년도에

---

외교정책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도민 「3장 2절: 남한의 '중립국' 외교경쟁의 전개」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교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1권, 183쪽; 이유재·최선주 「전도된 개발원조: 독일으로의 한국인 노동이주」, 『교포(Kyopo Shinmun)』 492호; 경제기획원 주재관 「차관 상황에 관한 종합보고」(주독기 302~994호), 주독한국대사관, 1962.6.
-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1권, 179쪽.
- 12) 당시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의 군사적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외교사료 뿐 아니라 한국 국방부와 서독 국방성의 관계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외교사료관에서 당시 정부 외교사료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논문을 수정하는 현 시점까지도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교사료관 방문이 불가능하여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지 못했다.
- 13) 박수현 「한국전쟁기 한국군의 도미 군사유학 경험」 2012.1.27. 현대한국군술사연구사업단 2012년 심포지엄 자료집; 김민식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군사지』 98, 2016.
- 14)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 陸軍士官學校, 1978; 陸士 五十年史 編纂委員會 編,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46-1996』, 육군사관학교, 1996.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독의 어떤 곳으로 유학을 했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서독을 경험한 한국군 엘리트들이 군사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군에서 하급 장교에서 장성으로 전역할 때까지 활동하는 내내 한국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서독 군사유학은 일차적으로 유학한 한국군 본인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이후 복귀하여 주요 직위에 오른 군사유학생들은 한국군에 직·간접적 영향주요자 노력했다.

본고가 다루는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이라는 주제는 한독관계사 연구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기존 한독관계사 연구에서는 주로 1960년대 진행된 광부와 간호사의 파독(派獨)이 다뤄졌다.<sup>15)</sup> 그런데 동 시기에 한국에서 독일로 간 사람들은 광부와 간호사뿐 아니라 한국 군인도 있었다. 흥미롭게도 본고가 다룬 구술자 중 한명은 1960년대 서독 군사유학 당시 만난 파독 간호사와 인연을 맺어 귀국 후 함께 결혼에 이르기도 했다. 이처럼 본고는 그동안 한독관계사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파독 한국군’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군인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의 경험을 유형별로 정리할 것이다. 이 시기 한국군은 세 가지 방향에서 서독 군사유학을 진행했다. 한국군은 첫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직접 서독 사관학교에 파견했으며, 둘째 위관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서독 지휘참모대학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지만 서독의 일반대학에 군인이 파견되기도 했다.<sup>16)</sup> 이에 본고는 1장에서 유형

15) 윤용선 「1960-70년대 파독 인력송출과 차관: 원조인가 거래인가?」, 『독일연구』 26, 2013; 정현백 「한독관계사, 회고와 성찰」, 『독일연구』 28, 2014; 나혜심 「파독 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100, 2009.

16) 실제 서독 군사유학은 세 유형 중 두 개를 경험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

별로 서독 군사유학을 떠난 이들이 왜 서독을 선택했으며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서독 군사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귀국한 이들이 한국군 내에서 장성까지 진급하여 활동하면서 서독의 경험이 어떻게 한국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60년대 중후반 사관생도이거나 위관급 장교로서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한국군 엘리트들은 대체로 1970년대 말부터 영관급 내지 장성으로 진급함으로써 한국군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위치에 올랐다. 따라서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한국 군인들이 초급장교에서 영관급 나아가 장성이 되면서 그들이 독일군 시스템을 한국군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와 좌절 혹은 성공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인물들의 자세한 구술에서 미군 시스템과 독일군 시스템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한국군 내 적용의 구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단이 수집한 서독 유학을 경험한 총 5명의 구술을 기본 자료로 활용했다.<sup>17)</sup> 구술자 5명의 이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sup>18)</sup>

---

어 박영환은 서독 사관학교 졸업 후 정영주는 서독 괴테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후,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군 내 영관급 장교로서 활동하다가 다시 서독 지휘참모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17) 문영일, 민병돈, 정영주, 유보선 등 4명의 구술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사업단(<https://mkoha.aks.ac.kr/>)에서 온라인 상으로 영상 및 구술녹취록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술자 총 5명 중 4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사업단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018년 구술이 진행된 박영환의 구술자료는 아직 웹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18) 이하 구술자료 인용은 구술자(성명), 구술차수, 구술년월일 순으로 표기할 것이다. 구술자의 자세한 약력은 논문 마지막에 정리한 <부록>을 참고할 것.

<표 1>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구술자의 주요 약력

| 성명<br>출생년도    | 육사기수<br>졸업년도  | 독일 유학   | 미국 유학  | 주요 경력                                  |
|---------------|---------------|---|--|--|
| 문영일<br>(1935) | 14기<br>(1958) | 지휘참모대학<br>(1969~70)                               | 미 특수전학교 유학<br>(Ft. Bragg<br>NorthCaroline)(1962) | 육군 중장 전역                               |
| 민병돈<br>(1935) | 15기<br>(1959) | 괴테 인스티투트<br>(Goethe-Institut)<br>독어독문과(1965~1966) | 없음   | 육사 독일어<br>교수(67~69),<br>육군 중장 전역       |
| 정영주<br>(1938) | 17기<br>(1961) | 괴테 인스티투트<br>독어독문과(1967~1968)                      | 없음   | 육사 독일어<br>교수(69~71),<br>육군 소장 전역       |
|               |               | 지휘참모대학 졸업<br>(1971~1972)                          |  |  |
| 유보선<br>(1946) | 24기<br>(1968) | 육군사관학교<br>(1965~1968)                             | 미육군기교 미고군반<br>(1973.08~1974.07)                  | 육군 소장 전역.<br>국방부 차관                    |
|               |               |   | 미육군대학원 연수 및<br>졸업(1985.04~1986.06)               |  |
| 박영환<br>(1945) | 27기<br>(1971) | 육군사관학교<br>(1968~1971)                             | 없음   | 주서독한국대사관<br>무관(1986~1990),<br>육군 준장 전역 |
|               |               | 지휘참모대학 졸업<br>(1981)                               |  |  |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현대사구술사팀이 수집한 구술자료는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인물들의 생애 전체를 담은 최초의 기록이다. 이 구술자료들 덕분에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 관련하여 별다른 문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군의 초창기 서독 군사유학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밝혀낼 수 있었다. 나아가 서독 군사유학이 한국군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데도 구술자의 생생한 기억들은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구술자료에 기반한 본 연구는 이러한 장점뿐 아니라 한계 또한 존재한다. 본고가 다루는 5명의 구술자가 당시 서독 군사유학생 전체가 아니며 그들을 대표한다고 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구술 자료의 성격상 구술자 개인의 회상과 기억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구술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자는 현재 확보가능한 문헌자료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나아가 구술자들의 구술 내용의 교차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sup>19)</sup>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문헌자료의 추가적인 발굴과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sup>20)</sup>

## 2.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의 유형 및 경험

### 가. 서독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1965년 1월 29일 한국군으로 처음으로 서독 육군사관학교로 3년간 파견 유학차 김포공항을 떠났다. 육군사관학교는 초기에는 매년 2명을, 1969년도부터는 1명의 생도만을 선발하여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보냈다. 1964년 육사

19) 예를 들어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이 서독 일반대학에 군사유학을 보내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민병돈과 정영주의 구술을 교차했으며 나아가 당시 한독간 군사교류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했다.

20) 익명의 심사자 중 한명이 지적했듯이, 서독 군사유학생들이 서독에서 경험한 ‘임무형 전술’의 한국군 이식 노력이 실질적으로 한국군 내 교범과 교리발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문헌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지점에서 다른 익명의 심사자는 구체적으로 미육군의 『FM 100-5 Operations』 (1976년판) 교범과 한국군 작전 교범을 비교 분석해서 증언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해주었다. 구술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두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다만 본 연구자가 짧은 시간 안에 자료적으로 한국군 작전 교범을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를 논문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24기로 입학한 생도를 시작으로 한국 육사생도의 독일 육군사관학교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sup>21)</sup>

『육군사관학교 30년사』 및 『50년사』에 따르면 외국사관학교로의 파견교육은 “육사 발전의 도약기에 이루어진 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교사(校史)는 한국 육군사관생도의 서독 육군사관학교 군사유학 결정이, “우방국과의 긴밀한 장기적인 군사교류의 필요성 제고에 따라 국방부 당국은 우선 1964년에 서독 국방성과의 접촉을 통하여 매년 육사생도 2명씩을 서독 육사에 유학시키기로 합의”한 결과였다고 적었다.<sup>22)</sup> 다만 교사는 당시 한국 국방부 당국과 서독 국방성이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떤 협정을 맺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신문을 보면, 1964년 8월 26일부터 민기식 육군참모총장이 약 1개월간 서독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순방했으며<sup>23)</sup> 그는 9월 3일 카우우베 폰 하셀 서독 국방상과 요담을 나눴다는 사실이 확인된다.<sup>24)</sup> 이때 한국 국방부와 서독 국방성이 한국 육사생의 서독 군사유학에 서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965년 1월 30일자 『경향신문』이 “한독교육보조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명씩 서독 육사에 유학보내기로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sup>25)</sup> 당시 신문 보도

21) 『경향신문』 1965년 1월 30일, 8면;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46-1996』, 육군사관학교, 1996. 345쪽. 1965~1970년 시기 서독 군사유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1965년(24기): 유보선(기갑)·유홍모(보병), 1966년(25기): 이상선(보병)·조남국(보병), 1967년(26기): 이한홍(보병)·정채하(기갑), 1968년(27기): 김유성(보병)·박영환(보병), 1969년(28기): 김관진(보병)·박흥환(보병) 1970년(29기): 김태영(보병)

22)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 陸軍士官學校, 1978, 328~330쪽; 陸士 五十年史 編纂委員會 編,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46-1996』, 육군사관학교, 1996. 344~346쪽.

23) 『경향신문』 1964년 9월 30일, 1면.

24) 『경향신문』 1964년 9월 5일, 2면.

25) 『경향신문』 1965년 1월 30일, 8면.

와 교사의 내용을 모두 고려해보면,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은 1964년 9월경 한국 국방부와 서독 국방성이 ‘한독교육보조협정’을 상호 체결함으로써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서독 군사유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했다. 교사(校史)에 따르면 1964년 육사 24기로 입교한 1학년 중에서 독일어 성적 20%, 내무성적 20%, 학업성적 20%, 환경 및 가정 배경 20%, 신체검사 20% 등의 심사기준 가지고 위원장을 생도대장으로 위원을 교수부 차장, 교무부장, 인문처장, 부관부장 등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선발했다고 한다.<sup>27)</sup>

『경향신문』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중 100명이 지원했고 이들 중에서 2명을 선발했다고 보도했다.<sup>28)</sup> 그런데 신문 보도처럼 반드시 모든 육사 생도들이 공고문을 읽고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1964년 서독 군사유학생으로 처음 선발된 유보선은 선발 공고를 보고 신청했던 기억은 없고, “신청도 안했지만은 학교에서 독일 유학 가지 않겠나”고 먼저 물어왔다고 회상했다.<sup>29)</sup>

또한 1967년 육사 27기로 입교한 박영한은 1학년 시절 10월달쯤 삼사관학교 체육대회 응원연습을 하러 이동하던 중, “일학년 중 30명을 호명”하면서 따로 “독일어 시험치러” 갔다.<sup>30)</sup> 즉 그에 따르면 서독 유학생을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1학년 생도들 중에서 30명 정도를 독일어 시험을 치르게 하여 평가했다고 한다. 박영한은 본인이 추후에 자신의 독일어 시험 점수를

26)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독했는데 이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본 연구자는 외교문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협정체결일과 협정문’을 담은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27)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 陸軍士官學校, 1978, 328~330쪽.

28) 『경향신문』, 1965년 1월 30일, 8면.

29)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30) 박영한, 2차구술, 2018년 8월 10일.

확인했는데 100점 만점 중 27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물론 육군사관학교 1학년 교과목에는 독일어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발된 박영한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박영한은 독일어 시험을 치르면서도 이것이 서독 군사유학생을 뽑는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에서 『경향신문』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육군사관학교는 1968년 1월에 서독으로 떠날 최종 유학생 2명을 뽑기 위해 1967년에 후보로서 3명을 뽑았으며 이들에게 독일어 훈련을 따로 가르쳤다. 이때 육사 교수부의 독어과 교수이던 민병돈은 서독 사관학교 군사유학 준비 생도들을 가르쳤다. 민병돈은 사관생도뿐 아니라 위관급 및 영관급 장교 약 7명도 함께 독일어 교육을 했다고 한다. 1967년 12월 육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 후보 3명 중 1명을 탈락시키고 박영한과 김유성 두 명을 파독 군사유학생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런데 탈락한 1명은 최종적으로 선발된 2명이 서독으로 떠날 때까지 발생할지 모르는 낙오에 대비해 계속 유학 준비를 함께 했다고 한다.<sup>31)</sup>

육군사관학교 생활과 학업 성적이 모두 뛰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서독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평가항목에서 20퍼센트를 차지하는 “환경 및 가정배경”도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1월 첫 서독 사관학교로 군사유학을 떠나는 육군사관생도는 입교 기준 24기 유보선과 유홍모였다. 유보선은 본인의 아버지가 육사 5기생으로 6·25전쟁 중 전사했기 때문에 “집안배경도” “확고”했다. 유홍모의 아버지도 경찰로서 모두 환경과 가정배경이 ‘확실한’ 생도생들이었다.<sup>32)</sup>

31) 박영한, 2차구술, 2018년 8월 10일.

32)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흥미롭게도 1965년 서독 군사유학을 선택한 유보선은 자신이 독일유학을 결정한 이유에는 한국군의 폭력적인 군사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유보선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1학년 시절 학업성적은 1등이었으나 개인적으로 기합을 주는 군대문화에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그러던 차에 학교에서 독일 유학에 대한 권유가 있었고 “하도 기합을 받다 보니까 돌파구로 그냥 응했다고 한다.<sup>33)</sup>

1965년 1월 29일 유보선과 유홍모는 서독으로 3년간 군사유학을 떠나기 위해 김포공항에 갔다. 서독 사관학교로 군사유학을 떠나는 첫 사례였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sup>34)</sup> 『경향신문』은 두 육사생도의 사진을 실은 「사관생도관 한·독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보도했다.

<그림1> 한국군 최초 육사생의 서독 유학



\* 출처: 『경향신문』, 1965년 1월 30일자 8면.

33)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34) 『동아일보』, 1965년 1월 27일, 3면.

이들 유학생은 독일에 도착하여 먼저 국방성 군사언어학교에서 독일어 과정을 약 6개월간 이수했다. 이후 전투병과학교에서 차량 운전, 병, 분대장, 공수유격훈련 및 소대장 과정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뮌헨에 있는 육군장교학교를 졸업하여 3년간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1968년 초에 귀국했다.<sup>35)</sup>

서독 군사유학생은 6개월 어학과정을 끝낸 후 기초군사훈련을 2개월 정도 마친 다음에 병과를 선택했다. 유홍모는 보병을 유보선은 기갑을 선택했다. 한국군 시스템과 달리 서독의 사관생도는 무등병으로 시작하여 앞으로 장교가 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관생도의 소매에다 마크 형태의 카뎃(Kadett)을 달았다. 즉 서독 사관생도들은 무등병에서 시작하여 계급이 올라가면서 병장,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위로 임관하는 시스템이었다.

기갑을 선택한 유보선은 먼저 2개월 간 모든 장비에 대한 운전교육을 마치고 면허증을 땀다. 그다음으로 분대장 교육 및 분대장 실습을 각각 6개월 정도 받았다. 그는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와 달리 학내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일반 전투부대에 가서 1개 분대를 지휘 통솔하는 분대장을 맡았다. 유보선은 분대장 시절 한국의 군대문화와 서독의 군대문화의 충돌을 경험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분대를 지휘하는데 그 개네들이 체격들이 크잖아요 우리보다. 그 개네들 쪽 이렇게 세워놓고, 어, 군기잡고. (...) 군기잡는 방법은 기합주는 거밖에 몰라가지고, (...) 그런데 독일군이 창설되는 이차대전 때 패한 후에 창설되면서, 미군들에 의해서 창설되면서 앞으로 다시는, 세계대전을 (...)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장 민주화된 군대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인권에 대한 또,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구타라든가 (...) 어떤, 비인간적인 기합 이런 게

35)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 陸軍士官學校, 1978, 345쪽.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 이 덩치 큰 사람들을 고분고분 말을 하게,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은 내가 육사에서 일년 동안 당했던, 그것 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막 뽕뽕이도 돌리고 선착순도 시키고 막 했죠. 그리고, 거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렇게, 어, 복장이 불량해도 상대방에게 당신 몸에 손을 대도 좋으나, 하고, 존댓말을 씁니다. 거긴 이제 반말도 있고 존댓말도 있는데, 당신 몸에 손을 대도 좋습니까, 부하인데도. 그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어, 허락을 득하고 이제 복장 교정해주고 넥타이 빠뜨어진 거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 그걸 묻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그거 폭력이에요. 그 정도로 인제 굉장히 인권이 강화됐죠.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엔 그냥, 응? 넥타이도 그냥 이게 상태가 이게 뭐냐 그리고 탁 잡아서 해주고, 또, 이 쪼그려 뛰기도 시키고 뭐, 뽕뽕이 막 돌리고 막 했지. 근데, 참 그 독일 애들이 정면에서 반박을 안 하고, 그렇게 부당한 명령 지시를 하더라도 다 수용을 하고, 그 나중에 인제 중대장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 인제 중대장이 불러다가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본국에 귀환시키겠다 하고 경고도 받고, 그런 기억이 나요.<sup>36)</sup>

유보선 뿐 아니라 3년 후배인 박영한도 서독의 유학 시절 기합 없는 군대 훈련 문화에 대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박영한은 기합을 주는 한국군의 문화가 “일제 시대 때부터” “뿌리 깊은 전통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영한은 귀국하여 장교생활을 할 때는 이런 “구습 타파”를 위해 노력했지만 소수 독일 유학을 갔다온 장교들만으로는 한국군의 고질적인 폭력적인 군대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했다.<sup>37)</sup>

36)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37) 박영한, 2차구술, 2018년 8월 10일.

서독의 사관학교 교육시스템에 대해 유보선과 박영한은 모두 자신들의 귀국 후 군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회상했다. 유보선은 한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소위 임관 후에야 경험할 수 있는 부대 지휘 경험을 이미 군사유학 과정에서 체득했기 때문에 귀국 후 소위로 임관 후 부대를 통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독일 시스템은 병, 병을 경험, 그러니까 무등병부터, 그, 하사관 생활도 하고 이제 장교로 임관하기 때문에 병과 하사관들의 생활을 다 해보고 그 사람들의 심리상태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제 장교로 임관하더라도 부대지휘 하는 데는 우리나라 장교 임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대 사정에 밝겠죠. 병들, 하사관들을,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수준이 어땡고, 어 하는 걸 전부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니까. 부대 지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는 병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같은 집단에서 공부만 하고 같은 끼리끼리만 하다가 갑자기 소대장 명령받아서 소대를, 응?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하려니까 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사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실습 그걸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상급자가, 계속 지시를 해줘요. 요 길을 요렇게 따라가가지고 여기에선 뭐 어떻게 하고 여기에선 어떡하고 뭐, 세부적으로 지시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 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황이 바뀌었다,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났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당황하게 되겠죠. 독일식 교육을 배우면은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또 다른, 임기응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sup>38)</sup>

38)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 나. 서독 지휘참모대학

서독 군사유학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뿐 아니라 위관급 및 영관급 장교들의 서독 지휘참모대학(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위탁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1965년 육군사관생도가 처음 서독으로 유학을 갈 때 지휘참모대학으로 유학가는 장교로 육군에서 2명 해병대에서 1명 총 3명이 더 있었다.<sup>39)</sup> 이렇게 1965년에 시작된 지휘참모대학 유학생은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69년 1월 서독 지휘참모대학에 유학을 갔던 문영일에 따르면 자신이 선발된 1968년 당시를 제3기였다고 회상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1966년이 제1기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구술자의 착오이거나 실제 중간에 한해가 빠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영일은 1969년 독일로 군사유학을 떠난 숫자는 사관생도 2명과 병과학교인 고등군사교육반 과정에 2명 그리고 지휘참모대학에 3명 총 7명이 함께 출발했다고 한다고 회상했다.<sup>40)</sup> 이때 1969년 문영일은 지휘참모대학에 가는 영관급 장교로서 육군사관생도를 책임지고 주독 독일대사관 무관부까지 인솔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문영일은 1969년 당시 육사 28기 생도이던 김관진을 인솔하여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떠났다. 문영일은 유학 과정에서 사관생도와 휴일에 식사도 같이 하며 여가도 함께 보내며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sup>41)</sup>

문영일은 서독에 도착한 후 6개월간 어학 연수를 이수했으며, 실습을 거친 후 서독 함부르크(Hamburg)에 있는 지휘참모대학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도 앞서 서독 군사유학을 떠났던 사관생도와 마찬가지로 서독 군대의 실습을 강조하는 훈련 경험에

39)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40) 문영일, 2차구술, 2015년 10월 13일.

41) 문영일, 2차구술, 2015년 10월 13일.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어학과정을\_인용자] 졸업하면은 이제 함부르그 학교에 가기 전에 이, 독일 사람들 실습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요시해. 모든지 실습, 이론보담도 실습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두달 동안 졸업하고, 6개월 졸업하고, 두달 동안 부대에 가가지고 일반 부대, 독일 부대, 내가 간곳은 어, 알프스산 밑에 있는 (...) 산악부대에 가서 두달 동안 여단이에요. 여단 참모를 겸해서 어, 연수를 해요. 부대도 살피고, 그러고 난 뒤에 함부르그(Hamburg)에 가서 10개월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본과 10개월이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달을 사단급, 사단급 부대 가가지고 사단 참모 또 오, 연수를 해요. 그러고 인제 귀국을 하는 겁니다.<sup>42)</sup>

1971년 3월 정영주는 소령 계급으로 서독 지휘참모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쾰른(Köln)에 있는 연방어학국에서 3개월 어학연수를 마친 후 함부르크에 위치한 지휘참모대학에 들어갔다. 본과정은 9개월이었다. 정영주는 앞서 문영일과 달리 1970년대 초 독일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의 분위기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다. 당시 서독은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동구권과 화해정책을 폈기 때문에 구주안보협력기구를 만들면서 모든 국방정책을 개방하자고 했으며 핵무기를 감축하며, 심지어 모든 훈련에 각국이 모두 공동 참관하는 정책을 펼쳤다. 따라서 정영주는 동구권 즉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훈련에 실제 참가했다. 특히 그는 “공산국가”이던 “소련군대” “폴란드, 체코” “헝가리”와 함께 참관하는 경험에 큰 놀라움을 느꼈다고 한다.<sup>43)</sup>

42) 문영일, 2차구술, 2015년 10월 13일.

43) 정영주, 2차구술, 2016년 11월 17일.

## 다. 서독 일반대학

앞서 두 유형과 달리 일견 군사 영역과 무관해 보이는 서독 내 일반대학에 유학을 간 사례도 있었다. 민병돈은 서울 휘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입학한 후 1959년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 보병 제25사단 소대장으로 부임했다. 1963년 육군정보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1965년 2월 서독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독일어 성적이 매우 우수했을 뿐 아니라 어릴 적 실제 독일인과 대화를 해봤던 경험이 풍부하여 독일어 회화 실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는 당시 군내 분위기는 해외 유학하면 으레 미국으로 가는 것이 대세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보학교에 파견 나와 있던 주한 서독무관 육군중령 알프레드 자그너(Alfred Zagner)는 그에게 서독 정부초청 장학금으로서독 유학생을 뽑는 시험에 응시해보라는 권유했다고 한다. 그가 회상하기를 당시 서울에서 시험을 봤을 때 군인뿐 아니라 일반대학 출신자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sup>44)</sup>

시험에 합격한 민병돈은 1965년 2월부터 괴테 인스티투트(Goethe-Institut) 독어독문학에서 약 2년간 유학했다. 당시 서독대학의 지도교수는 처음으로 민병돈 같은 직업군인을 가르쳤다고 다. 민병돈은 일반적인 군사유학과 달리 군복을 입지 않았으며 주독 한국대사관과도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하숙비와 학비 등을 바이에른(Bayern)주 정부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그는 독일 유학을 그것도 전투병과 장교를 2년씩이나 전혀 군대와 상관없는 공부를 하게 된 까닭을 개인적 인연에서 찾았다. 그는 당시 정보학교 교장 최내현이 마침 육군본부 육군정보참모부로 영전해 갔고, 그가 건의하여 유학을 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

44) 민병돈, 2차구술, 2015년 1월 4일.

다.<sup>45)</sup> 이처럼 민병돈 본인은 자신이 군사 영역과 무관한 학문을 서독에서 배우게 된 이유를 개인적 관계에서 찾았다.

그런데 민병돈 다음으로 동일한 곳에 유학을 갔다는 정영주의 설명은 달랐다. 정영주는 서울 중앙 중·고교를 졸업하고 1957년 육사 17기로 입교한 후 1961년 졸업했다. 1966년 1년간 정보학교 전략정보반 독일어반 교관을 역임했으며 이때 주한 서독대사관과 접촉했을 뿐 아니라 민병돈처럼 무관이던 자그너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동일한 경로, 즉 서독 정부초청 장학금으로 뮌헨 괴테인스티투트에서 어학을 배우고 교사 자격증을 받는 과정으로 1967년부터 2년간 서독에서 유학했다. 정영주는 민병돈이 개인적 관계라는 차원에서 서독 일반대학 유학을 설명한 것과 다르게 본인의 유학을 군사교류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64년도에 독일에 가서 간호장교, 간호원하고 그 탄광, 어, 그 광부들 보냈잖아요. 그 뉘브케(Lübke) 대통령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교류가, 군사교류까지 같이 했어요. 군사교류. 우리가 군사교류도 같이 하자, 그래서 군사교류가 되는 바람에 그 무관이 내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어, 독일에 유학을 가서 그 소정의 과정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받아서 독일 정부의 그 장학금 받고 이제 독일에 갔다 온 거예요.<sup>46)</sup>

정영주는 육사 19기 김건한도 본 대학 장학금을 수령하며 독일문학을 전공하며 서독 일반대학에서 유학을 했다고 구술했다. 이렇게 1965년 민병돈을 시작으로 2년씩 독일어학 관련 유학을 보내는 과정이 한국과 독일 사이에 맺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민병돈(15기),

45) 민병돈, 2차구술, 2015년 1월 4일.

46) 정영주, 2차구술, 2016년 11월 17일.

정영주(17기), 김건한(19기)은 모두 서독 유학을 마치고 바로 육군 사관학교 독일어 교수를 역임했다. 실제 앞서 박영한의 구술에서 드러나듯이, 민병돈은 1967년 육사에서 독일 군사유학을 준비하는 사관생도 및 위관급, 영관급 장교들의 어학 교육을 담당했다. 민병돈과 정영주의 구술내용은 상반되지만 1965년 한독 간 군사교류가 본격화되던 시점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일견 군사유학과 무관해보이는 서독 일반대학으로의 한국군 파견도 한독 군사교류의 일환이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처럼 문헌자료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서독 일반대학으로의 군사유학은 1965년 이후 계속되는 서독 사관학교 및 지휘참모대학으로의 한국군의 군사유학에 필요한 독일어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한국과 독일 양 국가간 모종의 협의에 따라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7)</sup>

### 3. 서독 군사유학이 한국군에 미친 영향

1965년부터 시작된 서독 군사유학은 유형별로 세 종류가 있었으며 실제 1년에 군사유학생은 약 10명 내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박영한은 1968년 서독 군사유학 준비를 위해 육군 사관학교 독일어 교수가 가르친 학생이 사관생도와 영관급, 위관급 장교들을 포함하여 약 10명 정도로 기억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문영일도 1969년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떠날 때 함께 갔던 인원이 10명 남짓이었다고 기억했다.

47)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한국과 독일 간의 교류사업이 종료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외교문서 같은 문헌자료를 좀더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군사유학이 이미 시행되고 있던 미국 군사유학과 비교하면 서독 군사유학생 숫자는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독 군사유학을 마친 사관생도나 위관급 및 영관급 장교들은 상당수 ‘장성’으로 진급하여 한국군 내에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예를 들어 서독 사관학교를 졸업한 1960년대 중후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영관급 이상의 장교가 되는 1970년대 말부터 서독 군사유학의 경험이 한국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서독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장교들에 의하여 ‘임무형 전술’ 개념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제기됐다고 밝히고 있다.<sup>48)</sup>

그렇다면 서독 군사유학의 경험이 과연 한국군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한국군 장교들은 독일군 시스템과 미군 시스템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먼저 임무형 전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임무형 전술

통제형과 달리 임무형 전술(auftragstaktik)은 독일에서 19세기부터 태동했다.<sup>49)</sup> 임무형 전술은 ‘임무에 의한 지휘 방식’으로서 모든 임무는 부하의 행동과 책임에 여유를 주기 위해 예하 부대의 지휘관의 위임하에 주도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전술을 의미했다.<sup>50)</sup> 독일은 150여년 전통의 임무형 전술을 바탕으로 하며, 1998년 임무

48)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임무형 지휘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6, 7쪽.

49)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임무형 지휘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6, 4쪽; 노병석 『임무형 지휘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군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5쪽; 디르크 W. 외팅 지음, 박정이 옮김, 『임무형 전술의 어제와 오늘』, 백암사, 1997, 16쪽.

50) 이한홍 『독일군 임무형 전술에 관한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1995, 4쪽; 이영주 「임무형 전술 Auftragstaktik의 본질에 대한 고찰」, 『한국군사학논집』 67(1), 126쪽.

형 지휘를 공식적인 독일군의 지휘개념으로 채택했다.<sup>51)</sup>

서독 군사유학을 처음으로 떠났던 유보선은 일반 전투부대에서 1개 분대장을 하면서 지휘통솔을 했는데 서독 사관학교 시스템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보선은 미국식의 지시형과 독일식의 임무형을 나눠서 후자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다. 유보선은 독일식 임무형 전술을 한국군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어, 실질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무만 딱 주면은 저 목표를 정해주고 저거, 뭐, 따라오려면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해서 저걸 딸 것이냐 하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임무형이죠. 임무형. 그런데 미국식은, 일일이 이게 어디, 어디로 지나가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공격해서 따라 하는 식으로 세세하게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융통성이 없고 이 저 어, 상급자의 지시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그게 인제 임무형 명령하고, 어, 우리 군대하고 좀 다른 점인데, 그래도 독일 갔다 온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군대도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 (...) 독일 사관학교에서 그런 식의 트레이닝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인제 그, 상당히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창설이 미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틀이 바뀌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sup>52)</sup>

51) 육군본부 『인간중심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2006, 3-10쪽.

52)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박영한도 독일의 임무형 전술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1968년 서독 사관학교에서 마지막 과정으로 프랑스 사관학교와 합숙훈련을 했는데 여기서 프랑스는 “독일보다 더 자유스럽게 스스로 참여하도록 교육하나”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도 당시까지 “짧은 기간에 데려다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비스트 트레이닝(beast training)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강제적인 훈련 시스템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영한은 베트남전쟁을 겪으면서 미국도 서독의 임무형 시스템을 확실히 받아들이게 됐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근데 미국이 임무형 전술을 확실히 받아들인 것은, 내가 나중에 이제 쪽 관련되는 거 연구하다 알았는데, 월남전에 당했거든. 월남전에서는 진짜 끈끈이 하나하나 지휘했던 말이야. 국방부에서 북폭 하면서, 무기 갖다 쏟아 부으면 될 줄 알고 밑에 군대들을 딱 묶어놓고, 위에서 계획한 대로 북폭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안되잖아.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손발 묶어놓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놓고 그냥 폭격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안 되거든. 월남전에서 패망한 후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미국 사람들이 연구한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졌나? 그때 연구한 게 다시 독일의 아우프트라그스타틱(Auftragstaktik), 임무형 전술 다시 연구한 거야. 그걸 잘 연구해서 소화해가지고 교범도 많이 개량하고, 훈련 제도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걸프전에서도 승리한다고 볼 수 있죠. 승리하고, 여러 가지에서 되잖아.<sup>53)</sup>

53) 박영한, 3차구술, 2018년 8월 14일.

박영한의 설명처럼, 미군은 베트남전 패인을 분석한 결과 화력 위주의 소모전에서 ‘기동전 사상’으로 전환했으며 특히 공지전투 교리 수립과정에서 서독군의 임무형 지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하기 시작했다. 실제 미군은 1990년대 걸프전 당시 이를 적용하였으며 2012년에는 『임무형 지휘 백서』를 출간하기까지 했다.<sup>54)</sup>

유보선처럼 박영한도 자신의 부대만큼은 독일식 임무형 훈련을 실시하려고 노력했다. 박영한은 1985년 서독 지휘참모대학에 군사 유학을 두 번째 다녀온 직후 육군대학 교수로서 전투위원회 교리 발전부에 발령받았다. 당시 교리발전부는 한국에 기계화 부대가 창설되어 수도기계화사단도 있었지만 아직 교범이 없던 상황에서 사단 교범을 만들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상태였다. 이때 박영한은 선배 교관들이 사단 교범이 없다는 것을 듣고 본인이 86년, 87년 1년 과제로 사단 교범을 제작 과제를 신청했다. 그는 1년 과제로 잡고 최소한 초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소련·독일의 관련 교범 및 일본의 『통수강령』 등을 참조했다. 특히 그는 사단 교범 초안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미국 스타일로 큰 틀을 잡고 곳곳에 독일식 시스템을 집어넣었으며 특히 독일식 임무형 전술 개념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고 한다. 면담자와 구술자의 대화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구술 내용이 길지만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54)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임무형 지휘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6, 5쪽.



면담자: 그게 그럼 만드는 과정, 실제 만들어 진 게 독일 게 주가 되는 건가요? 어떤, 어떤...

구술자: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이 독일 꼴 내가 많이 넣었어. 기동 이런 분야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응? 음, 많이 넣고. 큰 틀은 이 무기 체계나 이런 게 미국하고 같으니까 이 장, 질 편제 같은 거는 미국 스타일로 다 하면서.

면담자: 아, 큰 틀은 일단은 미국 스타일, 시스템 그대로. 기존 시스템 그대로...

구술자: 아, 무기, 저, 교범 체제는 이런 미국 시스템, 우리 하는 시스템으로 장절 구분은 다 하되 내용, 내용에 가가지고 중요한 어떤 핵심 개념에는 이제 독일 개념을 많이 넣었지.

면담자: 그러니까 장군님이 판단하실 때 저는 되게 궁금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일본식이 었다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대개 미국화 된 시스템으로 가, 가고 있었던 거고 그 와중에 또 어쨌든 독일로도 유학을 보내서 이제 장군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실제 또 독일적인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안에.

구술자: 그렇지 그 집어넣는 거지.

면담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틀은 어쨌든 미국적인 틀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요소요소를 조금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바꾸는 게 그러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건지. 정말 미국하고.

구술자: 아, 그래 내가 나중에 해보니까 미국도 이미 독일 그, 임무형 지휘 전술을 이미 수용을 했더라고. 왜냐하면 월남전에서 뭐 실패하고, 했다고 보고 나왔잖아요. 군사적으로 반성을 했어. 새로 연구를 했어. 독일에 대해서 새로 연구했다고. 그래 거기에 임무형 전술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미 적용 했더라고. 그래 참모 판단하는 방법. 다 알아. 임무형 전술을

적용하게 되면 항상 지휘관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의도에 맞춰서 이 개념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미국에 다 반영되어 있어. 이제 조금씩만 넣어서 강조하면 되는 거야.

면담자: 요때 지금 육군대학에 계실 때 실제 이제 없던 사단 교범을 만드실 때 어쨌든 다 참고는 하셨고 특히 이제 미국이 큰 틀이지만 또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독일 꺾 끌어다 쓰신 건데...

구술자: 그게 이제 임무형 전술이지.

면담자: 임무형 전술 이런 건데 근데 이미 고 시점에도 독일 교범에도 아니, 미국 교범에도 많이 좀 반영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 교범 자체는 독일 교범을 그 가장 기본 그런 요소요소에...

구술자: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지.<sup>55)</sup>

이처럼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한국군 장교는 서독의 임무형 전술 시스템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이를 한국군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우선 군사유학 후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 적용하려 했으며, 박영한의 경우 수도기계화사단 교범을 만드는 데 독일식 임무형 전술 시스템을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고 회상했다. 그렇다고 미군 시스템과 독일 시스템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군도 독일식 임무형 전술 체계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사단 교범을 작성할 때 박영한은 서독 군사교범을 가장 많이 반영했다고 구술했다.

---

55) 박영한, 4차구술, 2018년 8월 24일.

## 나. 복무규율·교육과정·기갑부대운영

사단 교범뿐 아니라 독일식 복무규율을 한국군에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영주는 서독 지휘참모대학을 유학한 후 육군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74년 4월 제6군단 제28사단 제273대대 대대장으로 부임했다. 이때 그는 군단장 이재전의 지시로 서독 복무규율을 번역하여 그것으로 군단 내 군인 복무규율을 작성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단장이\_인용자] “독일의 그 군대가 상당히 규율이 좋고 그렇다는데, 예, 독일 복무규율에 대해서 어,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자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마침 또 복무규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복무규율 1항부터 계속 번역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군단장 지휘지침 내려갈 때마다 내가 제이, 한 장부터 어? 부하는 상관에게 절대 명령복종이다. 어? 뭐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복무규율이에요. 거 참 멋있어요, 그 독일 복무규율이. 내가 다 기억을 못지만. 그래 한 절씩 계속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 군단의 이배, 비서실장에게 얘기하면 비서실장이 군단장 지휘서신 때마다 그걸 딱딱 번역한 걸, 어? 거기다 쳐 넣었어. 그래가지고 번역자, 독일 지휘참모대학 몇 대대 중령 정영주. 군단장 지휘서신에 내 이름이 번역자로서 전 군단에 퍼지니까 나야 뭐 너무 좋은 거지.<sup>56)</sup>

문영일은 1981년 1월 1일 육군대학 교수부장으로서는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서독 참모대학 교육과정처럼 개혁하고자 했다. 그는 연구단계로서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시행 단계까지 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56) 정영주, 2차구술, 2016년 11월 17일.

육대 교수부장이 돼 가지고 이제 지난 번에 내가 이야기 했던 그 욕심. 독일 참모대학에 교육과정,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즉각, 즉각 말아야. 그, 육대 교육혁신위원회. 하하하. 사실은 이게 총장이 하셔야 되는 건데, 육대 총장일 할 일을 육대 교수부장, 그런데 교수부장도 교육에 관한 건 힘이 있는 거니까. 지난 번 얘기했지마는, 장군이 되면은 뭔가 자기 뜻을 펼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육대, 그동안에 마음먹고 있던 거 육대 교육혁신위원회, 탁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막 보니까 이제 벌써 나는 독일 갔다왔지마는, 많은 나라에, 외국에 참모대학을 갔다 오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불란서, 영국 막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모아서, 모아가지고 ‘야, 너희가 보고 듣고 온 거 말이지. 교육혁신위원회 만들어, 만들었으니까 해란 말이야. 하자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연구를 시켰어요, 연구를 시켜가지고 몇 ‘한 달 내로 우선 자료 수집하고 3개월 내로 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입안을 해서 요거 내년부터, 내년도부터는 꼭 실천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4월이 돼서 명령이 난거지.<sup>57)</sup>

서독 사관학교에서 기갑을 선택한 유보선은 한국에 귀국하여 군 생활을 하면서 소대장, 기갑여단장 전속부관, 기갑학교 전출처 교관 그리고 기갑여단장을 하던 시절 내내 독일 시스템을 한국군에 적용하는 데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는 귀국 후 1968년 창설된 제2기갑여단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당시 한국군은 서독에서 배워온 기갑 운용체계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1968년 1월 김신조 사태 때문에 한국군은 기갑을 서독처럼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 형태로서 진지만을 만들고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답답해했다.

57) 문영일, 5차구술, 2015년 12월 2일.

김신조 일당이 넘어오는 바람에, 그런 활동에 주력했고, 탱크도 기동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방에 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정전차로 투입을 해놓고, 북한지역에 뭐 일이 일어나면 즉각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그러니까 기동전과는 다른 양상의 운영을 했죠. 내가 배운 거하고는 정반대, 아주 동떨어진<sup>58)</sup>

그는 기갑여단장 전속부관 시절 한국군의 기갑여단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군의 장비 상황과 지리적 조건이 서독과 다른 점 그리고 자신의 계급이 낮아서 개선하지 못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워낙에 우리 군이 낙후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휘제대가 기갑은 기갑여단이었어요. 기갑여단. 그리고 거기에 있는 탱크들은 전부 6·25 때 사용했던 노후화된 전차고. 근데 독일은 그 뭐 군단 정도의 제대가 있고. 또 이제 기동전 위주고. 우리는 진지전 위주고. 탱크를 진지에다가 틀어박고 이렇게 사격하는 그런 위주로 사용을 했고, 보병하고 탱크하고 같이 협동작전을 하면서 탱크가 기동을 하면 보병들은 뒤따라오면서, 아니면 탱크에 올라타고 오던가. 근데 독일에서는 그런 그게 없거든요. 보병도 장갑차 타고 같이 쫓아오고, 탱크하고 같이 기동전을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보병하고 같이 하다 보면 탱크가 속력이 늦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완전히 전술, 물론 지형이 달라서 그렇지만, 거기는 광활한 평야고. 우린 산악지대고 하니까. 독일전술을 옮겨오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 당시는 내 위치가 소대장으로, 전속부관으로써 영향력이 하나도 없죠. 어떤 교육기관의 고급신분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전술을 개발하고 하면 몰라도, 말단부대에서 뭐 시키는 일만, 전속부관이라는 게 심부름만 하는 그건데. 그런 그거는, 그

58) 유보선, 2차구술, 2017년 11월 2일.

당시 여단장도 그런 분야에 깊이 이렇게 나한테 뭐 묻고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기갑여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갑여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그런 면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인제 어떤 그, 그 기갑여단이 생겼지만 장비가 채 들어오지도 않았고, 완편이 되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 장비 완편하기 바쁘고, 병력보충하기 바쁘고 그랬지, 사령부만 딱 세워놓고 밑의 부대가 아직 보충이 안 되었으니까.<sup>59)</sup>

1973년 유보선은 기갑학교 전술학처 교관에 부임했다. 그는 여기서도 서독 군사유학 시절 배운 내용을 한국군 작전 내용에 반영하고 싶었다. 그는 교관으로서 이미 정해진 교안에다 자신이 배운 것을 일부 반영하는 형식으로 전술학처장이나 학교장 등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기존에 보전협동작전 위주의 개념에 전격작전 개념을 조금 가미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전에는 보전협동작전 위주로 되어있었지만 그런 개념의 그런 전술 위주였는데. 속도도 없고, 기동도 없고. 그냥 사람 걸어가는 속도 정도. 그리고 진지전. 방어할 때도 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전차를 틀어박아 놓고, 포를 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 내가 좀 바꾼 거는 방어할 때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집결하고 있다가, 적이 뚫고 들어오면 이 집결하고 있는 부대가 역습을 해가지고 가서 타격을 하는, 역습작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지전에서 기동전으로 조금 바꾸고. 공격작전에서도 그런 제병협동. 그런 개념으로 좀 바꾸고. 근데 아주 크게 많이 수정할 수는 없고. 제병협동. 제

59) 유보선, 2차구술, 2017년 11월 2일.

병과가 협동해서 작전하는 거죠. 항공, 포병, 전차, 보병. 이렇게 여러 부대들이 다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가면서 작전하는 그런. 독일의 이차 세계대전 때 전격전, 블리츠크리크(Blitzkrieg).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보전협동 위주의 그 속도도 없고 기동도 없는 그런 작전에서, 그런 전격작전 개념을 조금 가미한 그런 거죠.<sup>60)</sup>

1990년 드디어 유보선은 제3군 제1기갑여단장으로 부임했다. 소대장 시절과 달리 20여년이 지나 여단장에 오른 그는 한국군의 기갑이 장비 면에서도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기갑 부대 운영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이제 우리 군 수내부에서도 전력 증강이 되어 가면서 기갑 부대 운영에 대해서 어, 어, 뭐 많은 어, 외국의 예를 배워오고 하니까 기갑여단이라 하면은 규모가 굉장히 큰 부대니까. 이 부대를 보병들 지원해 주, 주는데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 간의 기갑 여단이 하나 정도 이렇게 지원 되가지고 군단 작전 하는데 군단 같은면은 이제 사단이 여러 갠데, 그 작전 할 때 사단이 전방작전하면은 기갑여단은 후방에서 어디가 위험한가 하는 걸 보고, 그 지역이 위험하다 하면은 그 지역에 쫓아가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어느 지역이 뚫렸다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또 이제 뭐 과감한 지휘관들은 이제 일부터 이제 유인을, 적을 유인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슬슬 이제 뒤로 후퇴해가면서 그 지역으로 적을 몰아넣은 다음에 기갑부대 투입해가지고 적을 섬멸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기동전을 많이 활용하게 된 거죠. 그건 이제 기갑 여단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sup>61)</sup>

60) 유보선, 2차구술, 2017년 11월 2일.

61) 유보선, 4차구술, 2017년 11월 15일.

이처럼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한국군 장교들이 영관급 혹은 장성급이 됐을 때 독일군 시스템을 한국군 교육과 사단 교범 제작, 복무규율, 군사훈련에서 직접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인물들의 개별적 노력에 의해 일부 서독군 시스템이 적용되기도 했다. 물론 기갑부대 운영 같은 군사훈련의 경우는 당시 현실적인 한국군의 장비상 제약 때문에 독일식 시스템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그런데 군사유학을 경험한 장교가 여단장으로 한국군 내에서 성장한 시점에서 마침 한국군의 장비 발달도 함께 향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서독에서 배운 기갑부대의 기동전을 현실화 시킬 수 있었다.

사단 교범에 독일식 임무형 전술 개념이 포함된 것은 한국군 사단 훈련에서 하나의 표준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독 군사유학을 갔다온 후 임무형 전술을 강조한 박영환은 1996년 『독일군 지휘철학』 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흥미롭게도 이 문헌은 2006년 육군본부가 펴낸 『임무형 지휘』 라는 교육회장의 참고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독 군사유학생들의 경험이 점차 한국군 내 교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sup>62)</sup>

62) 육군본부 『인간중심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2006, 부1-2쪽. 물론 독일식 임무형 전술이 한국군 훈련 교범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명확히 어떠한 문구를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한국군 육군 훈련 교범의 분석이 필요하다.



## 4. 맺음말

본고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갔던 초창기 한국군 장교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이 한국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 초창기 한국군 장교의 서독 군사유학은 육군사관학교·지휘참모대학·일반대학 등 세 곳에 10명 남짓 파견되는 형태였다.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이들은 대체로 그곳의 군대문화가 한국과 달리 기합이 없이 자율적이며, 훈련 방식도 ‘임무형’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서독 군사유학을 하고 돌아온 한국군들은 1970년대 말부터 한국군 내에서 영관급 이상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휘하의 부대 내 차원에서라도 서독식 군사문화 및 임무형 전술 등을 한국군 내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다. 때로는 한국군의 특정 사단의 교범이나 복무규율이 작성될 때, 서독 군사유학생에 의해 서독 교범이 활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생 숫자에 비하면 소수였지만 서독 군사유학생들이 한국군 내에서 일정한 지위에 오르게 되는 1970년대 말부터는 한국군에 독일식 군사 시스템이 일부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군 시스템이 한국에 적용된다고 하여 반드시 미군 시스템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독일에서 유래한 ‘임무형 전술’과 이를 한국군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던 서독 군사유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지휘관 계급에 오른 1980년대 이후 미국도 독일의 임무형 전술 시스템을 이미 흡수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유보선은 미국식 시스템과 독일식 시스템을 구별하기보다 미국도 이미 독일식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독일과 미국의 개념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단지 제대의 규모가 다를 뿐이지. 사관생도로서 배우는 제대의 규모는 소규모 제대고, 여기 미국 고등군사반에서 배울 때는 이미 대위, 또 거기 온 사람들은 소령도 있고 뭐 하니까. 그 장교들 상대로 하는 교육은 더 큰 제대니까. 개념은 같지만, 제대가 다르죠. (...) 그게 원래 독일에서 발전되어가지고 이차 세계대전 때 성공을 거둔 작전인데, 그걸 이제 미국이 받아들여가지고 더 정교화시키고 그런 거죠. (...) 독일 거하고 미국 거하고 뭐 완전히 다르다 하는 그게 아니고, 전술은 거의 같습니다.<sup>63)</sup>

미군과 독일군이 한국군에 미친 영향은 군내 문화나 전술 시스템의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 군사유학을 미국으로 가느냐 서독으로 가느냐는 한국군 개인의 진급 및 정체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 동기와 경로 및 한국군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한국군 개인의 차원에서 서독 군사유학이 군인으로서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독유학 경험을 살려 한국군에서 길을 찾아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 서독유학보다는 미국유학을 더 중요시 한 사람도 있었다. 흥미롭게도 1965년 맨 처음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떠났던 제1차 서독 사관학교 유학생 유보선과 유홍모는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 유보선은 이를 미국 쪽과 독일 쪽이라는 ‘두 개의 길’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독일만 갔다 왔으니까. 독일말 해도 재네들은 못 알아듣고. 그래서야, 이게 앞으로 영어를, 우리 군생활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절실함을 그때 처음 느꼈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제

63) 유보선, 2차구술, 2017년 11월 2일.

그, 중대장 마치고 미국에 교육 받으러 간 것도 그것 때문에 자극이 되어가지고 그때 간 거고. 독일어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군대에서는 더더군다나 독일어가 필요 없었고. 그래서 독일어는 완전히 죽은 언어다. 내가 직업군인으로서 생활할 때 독일어는 필요 없다.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과정은 미국 육군대학도 갔다오고 할, 이렇게 이제 주로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이니까, 미군하고 작전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어떤 전술, 뭐 교리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미국 인맥도 맺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후에 나는 독일은 한 번도 안 갔고. 기회만 있으면 미국 쪽으로만 갔죠. 그 반면에 유홍모는 미국 쪽은 하나도 안 가고, 독일 쪽으로만. 정반대의 길을 걸은 거죠.<sup>64)</sup>

이처럼 한국군 장교의 서독 군사유학의 경험이 한국군 개인의 정체성과 향후 한국군 내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한국군의 미군 군사유학과 서독 군사유학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고는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 유형의 또 다른 형태로서 서독 고등군사교육반 과정을 밝혀내지 못했다. 문영일의 구술에 따르면 분명히 1969년 서독의 병과학교인 고등군사교육반 과정으로 군사유학을 떠났던 두 명이 존재한다.<sup>65)</sup> 나아가 독일식 임무형 전술이 한국군 훈련 교범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명확히 어떠한 문구를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한국군 육군 훈련 교범의 분석도 필요하다.

64) 유보선, 2차구술, 2017년 11월 2일.

65) 문영일, 2차구술, 2015년 10월 13일.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구술채록이나 문헌자료 발굴에 따른 후속 연구들이 추후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20. 4. 3, 심사수정일 : 2020. 5. 6, 게재확정일 : 2020. 5. 18.)

주제어 : 한국군, 군사유학, 서독(독일), 육군사관학교, 임무형 전술, 군대 문화, 유보선, 박영한, 한·독 관계사

## <참고문헌>

### 1.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사업단 소장 구술자료  
(<https://mkoha.aks.ac.kr/>)

『경향신문』

『동아일보』

『KBS 뉴스』

『월간조선』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 陸軍士官學校, 1978.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46-1996』, 육군사관학교, 1996.

육군본부 『인간중심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2006,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임무형 지휘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6.

### 2. 단행본 및 논문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http://uci.or.kr/I804:11032-000000160410>

김민식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군사지』  
98호, 2016.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2836533@N2M>

김용주·신인호 『독일 연방군 총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7.

나혜심 「과독 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100, 2009.

<http://uci.or.kr/G701:C-00030522594@N2M>

노병석 『임무형 지휘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군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디르크 W. 외팅 지음, 박정이 옮김, 『임무형 전술의 어제와 오늘』, 백

- 암사, 1997.
- 박수현 「한국전쟁기 한국군의 도미 군사유학 경험」 2012.1.27. 현대한  
국구술사연구사업단 2012년 심포지엄 자료집.
- 오보영 편역 『(용어해설을 통해 본)독일군 지휘개념 = Führungsbegriffe』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1.
- 윤용선 「1960-70년대 파독 인력송출과 차관: 원조인가 거래인가?」 ,  
『독일연구』 26, 2013  
<http://uci.or.kr//G701:A-00081946691@N2M>
-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  
과 박사학위논문, 2019.  
<http://uci.or.kr/I804:11032-000000158394>
- 이영주 「임무형 전술 Auftragstaktik의 본질에 대한 고찰」 , 『한국군사  
학논집』 67(1), 2018.  
<http://uci.or.kr//I410-ECN-0101-2018-039-001944236@N2M>
- 이한홍 『독일군 임무형 전술에 관한 연구』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  
소, 1995.
- 이한홍 편저 『독일군 장교 양성교육』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9.
- 정현백 「한독관계사, 회고와 성찰」 , 『독일연구』 28, 2014  
<http://uci.or.kr//G701:A-00081946665@N2M>
-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https://doi.org/10.978.8989768/494>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  
에 대한 기여의 건」 ,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1권

<부록1> 문영일의 주요 약력 및 활동 내용

| 시기   | 활동 내용                                 |
|------|---------------------------------------|
| 1935 | 부산 동래 출생                              |
| 1958 | 육군사관학교 졸업(14기). 육군보병소위 임관             |
| 1962 | 미 특수전학교 유학(Ft. Bragg NorthCaroline)   |
| 1963 | 보병학교 유격학부 교관                          |
| 1966 | 주월 맹호부대 전사(戰史)장교                      |
| 1970 | 독일군 참모대학 유학                           |
| 1971 | 육군대학 교관                               |
| 1972 | 수도기계화사단 창설요원. 제102 기계화대대 창설           |
| 1976 | 공수특전사령부 정보참모. 모로코 파견 군사지원사절단장         |
| 1979 | 국방대학원 군인교수<br>(사우디 아라비아파견 군사사절단, 비공식) |
| 1980 | 육군대학교수부장                              |
| 1981 | 제7공수여단장                               |
| 1983 | 육군 제8사단장                              |
| 1985 | 육군본부 작전참모장(副長)                        |
| 1988 | 제1야전군 부사령관, 육군중장 예편.                  |
| 1993 | 국가안보회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
| 1995 | 미국 Ball 대학(인디애나 주립) 군사학부(ROTC) 방문교수   |
| 1999 | 국방대학원 초빙교수                            |
| 2006 |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

## &lt;부록2&gt; 민병돈의 주요 약력 및 활동 내용

| 시기          | 활동 내용                                 |
|-------------|---------------------------------------|
| 1935        | 서울 마포 출생                              |
| 1948        | 휘문중학교 입학                              |
| 1950.09.    | 육군 1사단 15연대 이등병으로 자원입대                |
| 1952        | 휘문고등학교 1학년으로 복학                       |
| 1955        |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입학                        |
| 1959.05.    |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 보병 제25사단 소대장으로 부임         |
| 1963        | 육군정보학교 교관 부임                          |
| 1965~1966   | 독일 괴테 인스티투트(Goethe-Institut) 독어독문과 유학 |
| 1966        | 육군사관학교 독일어 강사 교관                      |
| 1969.10.01. | 베트남 파병. 육군 보병제9사단 제28연대.              |
| 1970.10.    |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 보병장교 과장                   |
| 1971~1972   | 육군대학 단기과정 수료                          |
| 1972        | 제1공수특전단 제2대대장                         |
| 1974        | 백마부대 작전참모                             |
| 1974        | 제2군수사령부 정보작전처장                        |
| 1975        | 국방대학원 군사전략기획 과정 수료                    |
| 1975        | 육군대학 교수부 특수학 및 지휘학 처장                 |
| 1978        | 제33보병사단 102연대장                        |
| 1980.01.01. | 육군본부 교육참모부 교육훈련처 교육과장                 |
| 1980.06.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br>내무분과위원회 위원 겸 간사  |
| 1981.06.    | 제3공수여단장                               |
| 1983.06.    | 제20기계화보병사단장                           |
| 1985.06.    | 육군 정보참모부 차장                           |
| 1987.01.    | 육군 특전사령관                              |
| 1988.07.01. | 육군사관학교 교장(1989년 4월 10일까지 역임)          |
| 1989.05.30. | 육군 증장으로 예편                            |



### <부록3> 정영주의 주요 약력 및 활동 내용

| 시기        | 활동 내용                          |
|-----------|--------------------------------|
| 1938      | 서울 출생                          |
| 1950~1956 | 서울 중앙중, 고교 졸업                  |
| 1957~1961 | 육군사관학교 졸업(17기)                 |
| 1968~1970 | 독일 뮌헨 괴테 어학원 졸업                |
| 1971~1972 | 독일 지휘참모대학 졸업                   |
| 1972~1974 | 28사단 273대대 대대장                 |
| 1974~1978 | 육군전력증강위 연구위원 및 간사장             |
| 1978~1979 |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졸업                  |
| 1980~1982 | 수도기계화 사단 포병여단장                 |
| 1983~1984 | 한미연합군 사령부 작전과장                 |
| 1984      | 보병36사단 부사단장(준장)                |
| 1984~1988 |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준장), 작전차장(소장)       |
| 1988~1990 | 유엔사 정정위 한국 측 수석대표 및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
| 1990      | 육군소장 예편                        |

## &lt;부록4&gt; 유보선의 주요 약력 및 활동 내용

| 시기                | 활동 내용               |
|-------------------|---------------------|
| 1946              | 서울 출생               |
| 1961              | 서울중학교 졸업            |
| 1964              | 서울고등학교 졸업           |
| 1964              | 육군사관학교 입학(24기)      |
| 1965~1968         | 독일육군사관학교 군사유학 후 졸업  |
| 1968.02.22.       | 육군 소위 임관(해외)        |
| 1969.11.~1970.11. | 한미계획단 전속부관          |
| 1972.02.~1973.02. | 8사전차중 중대장           |
| 1973.08.~1974.07. | 미육군기교 미고군반          |
| 1977.07.~1979.03. | 국방부장관실 장관육군부관       |
| 1979.08.~1981.09. | 국방부합참벨지움 무관보좌관      |
| 1981.11.~1983.07. | 2기갑제16전차대대 대대장      |
| 1985.04.~1986.06. | 미육군대학원 연수 및 졸업      |
| 1989.02.~1990.06. | 국방부 정책기획실 국외정책담당관   |
| 1990.06.~1991.12. | 5군단 1기갑여단 여단장       |
| 1991.12.~1993.01. |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작전처장    |
| 1993.01.~1993.07. | 합참 작전기획본부 작전차장      |
| 1993.07.~1994.11. | 국방대학원 교수부장          |
| 1995.04.~1995.10. | 합참작전참모부 소요검증처장      |
| 1995.10.~1997.11. | 국방부 군비통제관, 육군 소장 전역 |
| 2001.05.~2003.03. |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
| 2003.03.~2004.08. | 국방부 차관              |

<부록5> 박영한의 주요 약력 및 활동 내용

| 시기                | 활동 내용                      |
|-------------------|----------------------------|
| 1945              | 경북 봉화 출생                   |
| 1957              | 안동 중앙국민학교 졸업               |
| 1960              | 부산 배정중학교 졸업                |
| 1963              | 예천 대천고등학교 졸업               |
| 1964              | 대구 계명대학교 입학                |
| 1967              | 육군사관학교 입학(27기)             |
| 1968~1971         | 독일육군사관학교 군사유학 후 졸업         |
| 1971              | 육군 소위 임관 (소대장)             |
| 1973              | 연세대학교 학군단 교관               |
| 1974.04.~1978.06. | 3공수여단 13대대 중대장             |
| 1977~1978         | 서강대 독문과 위탁교육               |
| 1979              | 합동참모본부 연구개발국 무기체계과         |
| 1981              | 독일 지휘참모대학 군사유학             |
| 1986~1990         | 주서독한국대사관 무관                |
| 1994              | 합동참모본부 대북전략과장              |
| 1995              |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
| 1995.12.          | 삼사관학교 교수부장                 |
| 1996              | 준장 진급                      |
| 1997              | 삼군사령부 관리처장, 교육사 교리부 차장     |
| 1999              | 합참 대학 교수부장, 국방대학원 합참 대학 학장 |
| 2000~2002         | 65사단장(동원사단)                |
| 2002              | 육군 준장 예편                   |

(Abstract)

## The ROK military's early experiences with studying in West Germany and their impact

Kim, Do-mi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the early Korean military officers who went to study in West Germany in the 1960s and the impact of their experiences on the Korean military. Under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1964, from 1965, the 2 cadets of Korea military academy sent to West German Army Academy as a status of military cadet, and at the same time, officers attended the West German Command and Staff college. Looking at the related research papers, there is only research on the study of Korean military to the United States.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was little literature on Korean military's study abroad in West Germany, this article revealed the specific types and experiences of military study in West Germany by analyzing the oral records related to the Korean military collected by the Contemporary Korean Oral History Research Group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yujanggak Kore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early days, 10 ROK military officers were dispatched to three locations, including a military academy, a commanding and staff college, and a general university in West Germany. Furthermore, this article revealed how ROK military West German students tried to apply the German military system within the Korean military since the 1980s, when military officers or officers at the level of military officers experienced military study abroad in West Germany and promoted up to become a Korean military general. For example, the German mission-based tactics were included as an FM(Field Manual) and the German decree on military service were not only translated and but applied to some ROKA units. Not only did some of the Korean

military officers who had experienced studying in West Germany studied American military at the same time, they were also able to confirm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merican military system and German one.

It is expected that the concrete situation of West German military study by the Korean military will be restored through the voices of experienced peoples, as well as fill the gap of histo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Germany

Keywords : Korean Army, Military Study Abroad, (West) Germany, Military Academy, Mission-type Tactics, Military Culture, Yoo Bo-sun, Park Young-han, the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Germany

